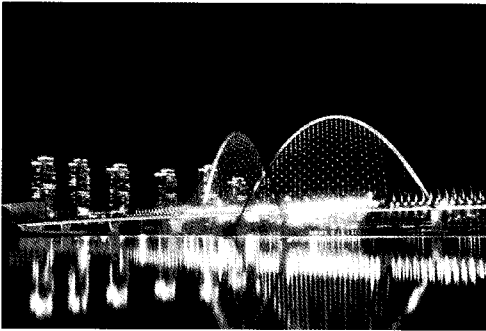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대전명소 7선

갑천 호수공원 야경

더 커지고 예뻐진 대전의 젓줄, 형형색색 엑스포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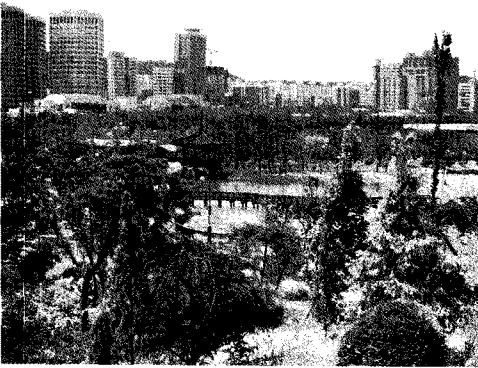
1993년 대전엑스포를 기념해 조성된 엑스포다리가 화려한 새 단장을 거쳐 대전의 명물로 다시 태어났다. 아찔한 곡선의 아치와 난간을 따라 자연과 비상을 표현하는 형형색색의 환상적인 조명이 설치됐고, 다리 난간에는 스윙시스템 분수와 물터널 분수가 설치돼 조명과 어우러진 분수 쇼가 낭만적인 풍취를 자아낸다. 저녁마다 갑천 우레탄 트랙을 따라 운동을 하던 시민들은 엑스포 다리 아래에서 환상적인 자태를 감상하며 잠시 숨을 고른다.



한밭수목원

녹색을 마신다! 국내 최대 도심 속 인공수목원

지난 5월, 동원(東園) 개장에 따라 1~3단계까지 전면 개방돼 시민들의 품에 안긴 한밭수목원. 전국 최대 규모의 인공수목원으로, 시민들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천혜의 자연 휴식처를 갖게 됐다. 지난 1993년부터 38만7천㎡ 부지에 총 300여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평송청소년수련원 북측의 동원에는 장미원과 유실수원, 소나무원, 약용식물원, 목단원, 전통 정원, 암석원, 생태연못, 팔각정자 등이 조성됐으며, 수목 745종 7만3천 그루와 초화류 621종 9만2천본이 식재됐다.



유림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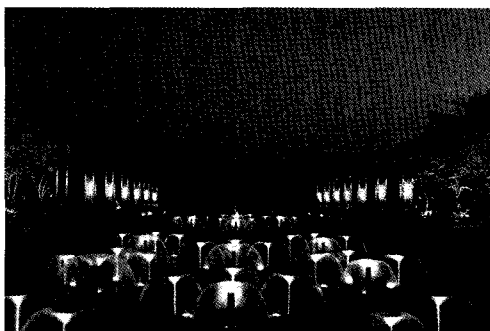
한반도 모양의 인공호수, 꽃, 그리고 아기자기한 산책길

2년여의 조성공사를 마치고 지난 6월28일 개장한 유림(裕林) 공원은 도심 한 가운데 자리한 푸른 생태 숲으로, 총 5만 7,592㎡의 부지에 우리나라 형상을 본떠 만든 생태연못과 벽천, 수변테크, 바닥분수, 정자, 전망대 등을 고루 갖췄다. 특히 도심에서는 보기 어려운 안면도 소나무와 속리산 소나무를 대량 식재했고, 6만 4천여 본의 나무와 13만 5천여 본의 아름다운 꽃을 심어 도심 속 명품 휴식공간을 자랑한다.



대전오월드

동물원+플라워랜드+놀이동산, 중부권 최대 테마파크



대전동물원과 플라워랜드를 통합한 중부권 최대의 대표적인 종합테마파크로 지난 5월 1일 완전 개장했다. 동물원과 꽃동산, 놀이체험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동식물 테마파크다., 특히 365일 꽃동산을 즐길 수 있는 10만㎡ 규모의 플라워랜드에는 사계절 정원, 장미원, 무궁화원, 분수거리, 야생화원, 미로원, 허브원, 연못 등이 들어섰다. 동물원과 플라워랜드는 나비를 형상화한 독특한 디자인의 42m 육교로 연결된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문의 580-4820 △오월드 입장요금-어른 8천원, 청소년 4천원, 어린이 3천원.

만인산자연휴양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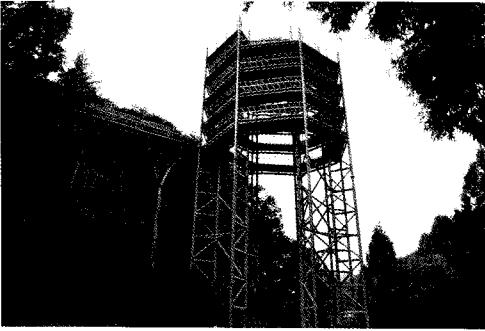
브리지형 공중탐방로에서 숲속의 자연을 내 품에



산세가 수려한 만인산 자락에 위치해 맑은 계곡과 활엽수가 울창한 산림을 이루는 만인산자연휴양림. 지난 2월 숲 속에서 자연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브리지형 숲속 자연탐방로가 개방되면서 더욱 멋스러운 풍광을 연출한다. 제법 높게 자란 나무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공중탐방로를 걸으며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 통나무로 지어진 만인산 휴게소와 그 아래 제법 큰 연못은 가을날의 운치 있는 호젓함을 선사한다.

장태산자연휴양림

메타세콰이어 나무 위를 걸으며 이끼도롱뇽 발견 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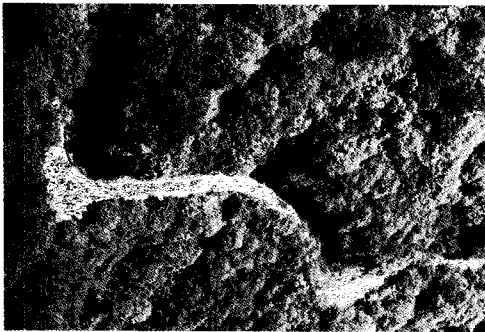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메타세콰이어 숲이 울창하게 형성된 휴양림이다. 주변경관이 수려하기도 하지만 아름다리 메타세콰이어 숲이야말로 대전8경의 한 곳으로 불리기에 충분할 만큼 매력적이다. 운치 있는 목조다리와 아우러진 생태연못, 아름다리 꽃들이 향기를 뿜어내는 야생화동산, 교과서 식물권과 명상의 숲 등 가벼운 산책을 겸한 산림욕이 즐겁다. 특히 메타세콰이어의 우거진 숲을 하늘 위에서 즐길 수 있는 포레스트 어드벤처(Forest Adventure)가 완공돼 이번 추석 연휴부터 전격 개방됐다.

△문의 585-8061~2

계족산 명품 숲길 100리

끝이 없는 숲속 길, 그리고 아름다운 맨발의 추억



계족산에 명품 숲길이 열렸다. 기존에 있던 산길에 단절됐던 대덕구 범동 용화사-가양비래공원 구간 4.62km를 연결, 총연장 42.25km의 100리 숲길이 조성된 것. 지난 5월 한국관광공사가 '5월 최고의 명소'로 선정하기도 한 계족산 숲길은 14.5km 구간에 자갈을 없애고 마사토를 깔 황톳길을 조성, 해마다 맨발 마사이라톤대회가 열리는 등 매년 100만 명이 넘게 찾는 전국적인 명소가 됐다.